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한국의 냉면과 일본의 소바

“내가 아는 한 어떤 음식도 냉면처럼 열렬한 신도를 거느리고 있지 못하다. 비빔밥, 육개장, 찰떡 뒤에 ‘광’자를 붙였다 때여 보면 냉면의 위대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음식 이름 뒤에 ‘광’을 붙일 만한 것은 그 음식이 그만큼 중독성이 있어 서일 것이다. 도대체 냉면에 무슨 맛이 있기에 사람을 중독시키는가”

소설가 성석제의 수필집 ‘소풍’에 실린 ‘냉면광’의 한 대목이다. 작가의 지적대로 다른 음식과 달리 냉면은 유난히 중독성이 강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냉면광’이 늘어나니 언제 부턴가는 ‘면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냉면과 ‘익스플레인’(explain·설명하다)의 합성어로, 냉면은 반드시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언행을 의미한다. 냉면광이 개인의 유별난 기호를 인정하는 의미라면, 면스플레인에는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아는 체하고 원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다.

그 냉소는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저항감일지도 모른다. 사실

한국인에게 있어 소비자가 스스로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계보를 분류하고, 논쟁의 선봉에 섰던 음식은 냉면이 처음이다. 나는 가난과 곤궁함의 상징이었던 메밀을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여기고 있다. 단지 소비하는 것을 넘어 문화의 관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을 처음 가져 보기에 어색할 따름이다.

같은 메밀로 만들지만 한국의 냉면과 같은 위상을 가진 음식으로 일본의 소바가 있다. 메밀을 재분하고 제면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동안 소바는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과 결합한다. 사실 소바는 메밀을 갈고, 반죽하고, 칼로 썰고, 뜨거운 물에 삶는 아주 간단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일본인은 이런 단순한 과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고도의 숙련이아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사물의 본질을 헤아리거나 철학적인 물음의 답을 찾는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본능의 세계에 충실했다. 이리다 보니 도덕적이고 윤리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로 약했다.

대신 그들은 ‘고도의 숙련’을 도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 숙련이 곧 도덕이다 보니 장인이 대접받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에 집요하게 매달릴 뿐만 아니라 그 것이 가져오는 미묘한 차이를 매우 호들갑스럽게 떠받드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일본 음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히는 섬세함과 디테일은 이런 역사적 혹은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100m 달리기 세계기록을 보자. 1999년 모리스 그리니 세운 9초79를 우사인 볼트가 9초69로 앞당기는 데 무려 9년이 걸렸다. 고작 0.1초를 위해 수없는 반복 훈련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과학이 총결집했다. 한 계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다.

소바 같은 단순한 음식에 유난히 장인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100m 달리기에서 0.1초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고도로 숙련된 장인의 손길에서 뽑아져 나오는 면의 미묘한

풍미와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우동과 라멘은 완전한 대중음식이 된 반면, 소바는 아직도 전통 음식 혹은 장인의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서 한국인에게 소바는 여간 어려운 음식이 아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마니아도 많다. 마치 우리나라에 ‘냉면광’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일본의 소바가 만드는 사람 즉 장인의 솜씨에 의해 고도화되었다면, 냉면의 경우 대중의 관심이 오히려 수준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름지기 음식은 대중의 수준만큼 발달한다. 우리는 냉면에 대해 좀 더 치열해지고 애정을 쏟아도 된다. 냉면은 그런 대중의 관심 속에서 더욱 한국적인 음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음식을 갖고 왜들 그렇게 호들갑이나, 눈살 찌푸리지 마시라. 대중음식은 원래 야단법석 속에서 발달한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치와 이념의 이진투구가 아니라 냉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금희의 오월, 빛진 자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

을 법도 한데, 병원의 한혈 대기 줄은 제법 길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겨우 한혈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 양달리기를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금희의 배와 허리를 명중했다. 금희는 자신이 현혈한 바로 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그러나 방금 뺀고 나온 피조차 채 식지도 않았을 그 시간에, 해맑은 미소를 띠고 찾아와 조금 전에 현혈하고 갔던 여고생이 피투성이의 시신이 되어 다시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는, 보는 이 모두가 경악했으며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이내 잠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왔다.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의 아픔은 십자가의 현상이었다. 삼위 하나님은 역사적 현장에 위로자가 되신다. 숨죽여 기도하는 광주 시민과도 함께하였고, 금남로와 도청 광장에도 함께하셨다. 광주의 공포와 절규, 무고한 시민이 쓰러져 가는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도 함께하셨다. 금희의 영정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어머니에게도 함께하셨다.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광주시민은 남녀노소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돕고 위로하였다. 현장의 응급실장 회고에 의하면 한혈

하겠다고 대기하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으며, 수혈 백이없다고 하니 시민들이 적십자병원에서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한다. 필요한 물건을 말하면 모두 협조하여 도와주겠다는 시민들이 많아 함께하려는 시민정신이 대단했다고 전한다. 광주기독병원은 상황실 운영으로 조직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하였고, 특히 수술실에는 당시 5개의 수술방이 있었는데, 그 방 전부를 열어 수술에 는 외과,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두 참여해 사를 받았을 때 계속해 50명이 넘는 총상 환자가 한 명도 숨지지 않고 모두 살아나는 기적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회고한다.

전반적인 의료 상황에서 광주기독병원에 많은 환자가 몰렸던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계엄군의 발표가 있었던 5월 21일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었지만 광주기독병원은 쉬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광주기독병원은 전부터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공감대, 셋째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병원에 오길 두려워했는데 기독병원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이 작

유했을 것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병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였고, 학생과 시민들도 광주기독병원에 대한 인식이 협력자적인 입장이어서 마음 놓고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광주기독병원은 민주화운동 이후에도 부상자들을 가족처럼 치료하고 돌봄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빛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다양한 노력까지를 포함할 때, 5·18 민주화운동은 또 하나 희망의 원초가 될 수 있다. 광주기독병원은 1980년 5·18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수행한 의료 활동에 대한 사진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신앙 집회를 통하여 빛진 자들로서 사명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5월 10일 금희가 다녔던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와 적십자혈액원과 함께하여 그날을 기억하는 빛진 자들로서 생명 나눔의 한혈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금희가 나누고자 하였던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오월의 생명 나눔 정신이 미래의 사명자로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자 한다.

기고

오월 광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



김동한 광주시의회 의장

들에게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 민주 열사들이 자신을 버리고 선택한 숭고한 ‘오월 정신’을 오롯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5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울러 최근 일부 세력이 즐기자게 시도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시민 모두가 함께 막아 내야 하겠다.

5월은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의 달이면서 고마움을 함께 전하는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일상의 분주함으로 챙기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뜻 깊은 날들의 연속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날들은 가족, 이웃, 사회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경제적 풍요 속에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혼율과 자살률은 1위이며,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 또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나 홀로 가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가정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고, 시대적인 문제로 떠올라 가정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가족 구성원들의 꿈과 행복, 사랑의 출발점이며서 귀결점이다. 건강한 가정은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며,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5월에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눈높이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따뜻한 5월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인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5월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5대 국제경기 대회에 속하는 대규모 스포츠행사로, 이번 대회에는 200여 개 국가에서 1만 5000명

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민주주의 성지이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다.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은 또 하나의 전설을 우리 광주가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3명의 의원 전원이 홍보단을 구성하여 서울을 비롯 전국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하는 등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겠다.

오월이 갖는 의미를 짚는 글에 모두 담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다만 광주사람으로서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광주 정신’과 ‘고마움을 나누는 훈훈함’으로 가득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5월 보내시기를 바라며, 광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 의회’가 되기 위해 오월에도 더욱 더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社說

5·18 진압군 호국 영웅 둔갑 당장 바로잡아야

5·18 광주 민주 항쟁 당시 광주에 투입돼 사망한 계엄군들의 이름이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80년 5월 24일, 주남마을에서 광주 공항으로 이동하는 11공수여단과 송암동을 방어하던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 간 오인사적으로 인해 숨진 11공수 부대원 8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다.

그동안 광주 시민들을 확실한 계엄군을 한국전쟁 등에서 산화한 호국 영웅과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해 왔더니 이게 말이 되는가. 전두환 신군부는 5·18 직후에 아군 간 오인 사적 등으로 숨진 계엄군 22명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뒤바꾸어 화랑 무공훈장 등 훈장을 각각 수여한 바 있다.

이러한 포상은 ‘군 인사법’에서 정한 전사자와 순직자의 구분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으로, 신군부의 잘못된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들에게 광주 시민이

‘적’이었으며 그들은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이다.

“충정작전 유공 포상” 자료에 따르면 5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오인 사적으로 숨진 계엄군의 전사·순직 구분도 자의적이었다. 11공수부대 차 모 대위는 ‘전사’로, 같은 소속 박 모 중사는 ‘폭도의 흉탄에 순직’이라고 기록했다. 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회 조사 결과 폭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돼 있는 권 모 일병이 실제로는 11공수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5월단체 관계자들은 “전쟁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현충 시설을 전수 조사해 5·18과 관련된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연한 얘기다. 전사자 명비에 잘못 새겨진 계엄군 이름은 당장 삭제해야한다. 5·18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진실 규명과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는 요원하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위해 전라선 고속화를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도시로 떠오른 여수. 해마다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광역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 서울에서 KTX로 여수를 찾으려면 여전히 세 시간 이상, 승용차로는 다섯 시간이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의 고속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시 관광협의회와 여수상공회의소가 엇그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 발전 세미나’에서 최창호 전남대 교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에 전라선 KTX 속도 개선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화와 KTX 전용선 신설 등 고속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히 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경전선 개량 사업과 연계해 여수-광주 간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여수 간도 두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수도권

과 전라권 관광객을 흡수해 여수는 물론 전남 동부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다.

여수의 철도 승객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55.3%가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차종별로 KTX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용객이 절반을 넘는다. 그만큼 철도 이용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라선은 수시간 고속철(SRT)이 운행되지 않는 데다, KTX도 운행 횟수가 적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라선 고속화는 전남의 최대 숙원 사업이며 수도권과 전국 주요 거점을 철도를 통해 두 시간대로 연결한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한다. 특히 경부선과 비교할 때 이 지역 철도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점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아울러 영호남 남해안 관광벨트의 조기 구축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無等鼓

커피는 일상이 됐다. 커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식사 후엔 자연스럽게 커피 가게로 향한다. 지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 평균 커피 소비량은 512잔이다.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는 이들도 있으나 1인당 소비량은 더 많을 거다.

‘커피 사회’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커피사회’ 전(26일까)에 다녀오면 아마 당신도 옛 기억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서울 전시에서 20만 명 이상 동원했던 ‘커피사회’전은 커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다. 입장권 역할을 하는 ‘종이컵’을 받아 들고 전시장에 들어섰다. 정훈희의 ‘꽃밭에서’가 흘러나온다.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작품 ‘신청곡’인데, 가상의 음악다방에서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광주 정신’과 ‘고마움을 나누는 훈훈함’으로 가득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5월 보내시기를 바라며, 광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 의회’가 되기 위해 오월에도 더욱 더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중 신청해 감상할 수 있으며 토요일엔 DJ가 직접 음악도 틀어준다. ‘신청곡 베스트 5’에 이소라·버스커버스커의 노래가 올라 있다.

5단 케이크 형태의 ‘커피, 케이크, 트러’는 각각의 단에 커피 드립퍼, 맥스웰 커피통, 이문세·유재하의 LP판 등 커피와 관련한 아카이브 물품을 전시한 작품이다. 로스팅한 콩 2.5t이 바닥에 깔려 있고 소파와 거울이 어우러진 작품 ‘방’에 들어선 관객들은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하다.

또 1930년대 근대 풍경으로 들어가 소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양림촬영’, ‘경성 다방 마담의 5대 미인’으로 꼽혔던 금홍과 그의 애인 시인 이상이 열었던 ‘제비 다방’ 이야기, 한국영화에 등장하는 ‘다방 장면’만 모든 영상 등 흥미로운 작품도 눈길을 끈다.

시간을 잘 맞춰 가면 ‘종이컵’으로 지역 카페들이 준비한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 난 이날 카페 ‘마루’의 드립 커피를 마시며 전시를 즐겼다. 커피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들러 보시길. 전시는 무료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국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